

'국경조정세' 車 · 스마트폰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 확대를 위해 국경 조정세(BAT)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국내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값이 평균 8% 인상되고 연간 200만대 이상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으로 수출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판매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국경조정세가 적용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 가격이 평균 3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포드나 GM 등 미국 차에 비해 인상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차의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경조정세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업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멕시코 등으로 공장이전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품공급 체계를 미국산으로 돌리던 현지에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부품업체도 공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기차 미국 판매가 평균 300만원 ↑ · 미국차의 10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타격
삼성전자 · LG전자 일단 가전제품 위주 현지생산 체제 구축 검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시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단 가전제품 위주로 현지생산 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투자 확대에 나서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LG전자는 우선 3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미국 뉴저지주 잉클우드 클리프에 신사옥을 짓기로 했다. 대지 면적 11만㎡(3만3275평), 2동(棟) 연면적 6만3000㎡로 현재 직원

들이 사용하는 건물의 6배 규모다. 신사옥에는 LG전자뿐 아니라 LG화학, LG생활건강, LG CNS, 범한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도 함께 입주한다. 아울러 미국에 생활가전 전방을 아우르는 핵심 생산기지 구축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역시 미국에 가전공장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 생산에 돌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지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멕시코 티후아나, 게레타로 등에 있는 공장에

서 TV와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해 판매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 및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미국에 생산기지 구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여러 공장 후보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과 LG는 생산 비용 급증으로 스마트폰 생산기지까지 미국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뉴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19억원... 대출사기의 7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총 4만 5748건)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1340억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액은 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사칭 수법에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금융회사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는 유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대출 수수가 많은 40~50대가 58.6%를 점유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30대 여성의 피해가 많았다.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대포통장은 4만6351개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만7411명으로 26.5% 줄었다. /뉴스

재계, 엔화약세에 수출에 빨간불 우려

자동차 · 조선 등 '타격' ... 반도체 '중립' ... 엔화 차입 · 원부자재 일본 수입 '호재'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30원대로 떨어지던 가운데 100엔당 원화도 1000원 선을 밑돌면서 재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상대 일본의 엔화가 지속 하락하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엔화약세 추이에 수출업체들이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화 약세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 · 현대차 · LG 등 주요 기업들은 즉각 환차손 등과 관련한 파장 분석은 물론 수출전략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진한 모습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환율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적은 편이다"면서도 "엔화 약세가 장기화된다면 수출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도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화가 떨어지면 일본차에 유리하다"며 "미국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가 일본차와 경쟁하는 가장 큰 시장인데, 국산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시장도 일본차들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불리하다"고 했다.

조선업계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조선사들과의 글로벌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철

강업계 또한 "일본 철강사들과의 가격 경쟁을 우려하고 있지만 엔화 차입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은 호재"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경우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가장 수출이 많은 주력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고 대금의 결제도 달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일본업체와의 경쟁관계가 심한 자동차 업계와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으나 우리 반도체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산업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또 크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원부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체나 엔화결제 기업들은 비용절감 효과가 환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한국지엠, 누적 수출대수 2000만 대 돌파

한국지엠주식회사가 2002년 회사 출범부터 지난 1월까지 누적 수출(완성차 및 부품조립CKD) 대수 2000만 대를 돌파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완성차 및 CKD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수출 중이며, 지난 2010년에 누적 수출 1000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이후 꾸준한 수출을 통해 15년

만에 누적 수출 2000만대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지난 15일, 부평 본사에서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James Kim)을 비롯해 영업·AS·마케팅 부문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부사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만대 수출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LG G6 출고가, 80만원 후반대 될 듯

3월 중순 출시 예상

LG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 G6 출가를 80만원 후반대에 놓고 국내 이통통신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6일 "현재 LG G6는 80만원 후반대에서 협의 중"이라며 "정확한 출가는 출시 직전에야 확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출시일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G6는 전작인 G5(89만6000원)에 비해서는 높고 지난해 말에 나온 V20(89만9800원)과 비교해서는 낮은 가격에 설정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WM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7'을 하루 앞두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G6를 공개한다. 공개 날짜가 다가오면서 G6 스펙에 대한 정보도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다.

G6는 차기작인 G5에서 채택했던 모듈형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일체형으로 전환했다. 5.7인치 크기, 18:9 비

율의 고해상도(1440x2880)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1인치당 화소수(PPI)는 564개에 달한다.

5.3인치 크기에 QHD(1440x2560) 해상도로 554PPI 집적도를 지닌 G5에 비해 화질이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기존 QHD LCD 대비 투과율은 10% 높아 아이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소비전력을 30% 줄였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초로 쿼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가 들어간 V20에 이어, G6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행 쿼드 DAC가 탑재된다.

쿼드 DAC는 4개의 DAC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해 DAC를 1개 사용했을 때 보다 크기는 4분의 1로 줄이고 잡음은 최대 50%까지 낮춘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이다.

안정성도 강화했다. 신제품에 히트 파이프를 적용해 발열을 낮추고, 국제 기준보다 높은 다양한 품질 테스트를 도입했다.

아울러 G6는 배터리 일체, 방수방진, 듀얼카메라, 인공지능(AI)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대거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LG유플러스, 오피스텔에 IoT 서비스 제공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이동통신사의 가장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부동산시행전문업체(주)더채움, 건설시공업체 대창기업(주)이 수도권 도심지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에 Io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IoT 서비스가 적용된 오피스텔로는 이번이 네 번째다.

홈IoT 서비스는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도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 주거 특성상 IoT 보안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원격 기기제어는 입

주자들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다.

이번에 건설되는 IoT오피스텔 '안산 고잔 ZOOM CITY'는 안산시 오피스텔 중 최초로 IoT가 구축된다. '고급형 IoT허브', '열림감지센서', '플러그', '스위치' 등 가정용 IoT 상품 4종과 IoT시스템에어컨이 구축될 예정이다.

홈CCTV 맘카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IoT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IoT@Home'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집 현관문 또는 창문의 열림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에어컨 및 조명 켜고 끄기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뉴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